

한국어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에 대한 연구

황 정 민*

차 례

- I. 들어가며
- II. 한국어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법
- III. 가타카나 표기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IV. 마치면서

I. 들어가며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 고유명사의 일본어 가타카나 표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다. 한국어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법에 대한 규정은 1987년 문교부에서 발표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이 개정 없이 현재까지 가타카나 표기법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교부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형태의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의 불일치의 문제는 표기 혼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기의 통일이 시급히 요구된다. 실제로 일본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기 위하여 일본어로 쓰여진 관광홍보 책자나 안내 지도에 표기된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를 보면, 동일한 단어의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복수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표기 불일치의 문제는 단순히 표기의 정확성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표기를 읽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문교부에서 발표한 ‘국어의 가나문자 표기법’의 규정 중에서 어떠한 표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 표기에서 어떠한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현행 한국어의 가타카나 표기 규정은 1987년 11월 17일에 문교부에서 발표한 편수자료 II-3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근거하고 있다. 1987년에 발표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은 공식적으로 한국어의 가타카나 표기규정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교과서 편찬을 위하여 외래어 표기법의 편수자료¹⁾로서 발표되었으나, 현행 12종의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표기조차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성아(1999)는 제6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어휘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의 고유명사나 한국어어를 가타카나로 표기했을 때 같은 단어의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성씨인 ‘李’의 경우 ‘イ’, ‘イー’, ‘リ’, ‘リー’의 네 가지 표기가 나타나고 있는 등 교과서의 한국어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²⁾

우메다 히로유키(梅田博之, 1989)는 한국어의 가타카나 표기는 일본어의 문맥 속에서 표기하는 것이며, 한국어 학습에서 벗어나 일반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어 표기법의 범위 내에서 표기해야 함을 주장했다.³⁾

II. 한국어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법

1. 조사 자료 및 대상

본고에서는 한국어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 조사를 위하여 한국에서 간행된 관광홍보 책자 및 안내 지도 등의 일반 자료와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12종의 일본어 교과서를 가타카나 표기 조사의 자료로서 선정하였다. 본고에서 일반 자료로서 선정한 조사자료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안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도, 단행본, 홍보

용 소책자, 전단지, 인터넷 사이트 등의 가타카나 표기를 일반 조사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의 표기 조사의 일반자료로서 사용된 조사자료는 다음과 같다.⁴⁾

1) 지도

(1) 한국관광공사 발행 지도

- ① 「한국·서울 맵」(「韓國・ソウルマップ」)(2000)
- ② 「한국쇼핑가이드」(「韓國ショッピングガイド」)(1999)
- ③ 「가원도 트레블맵」(「江原道トラベルマップ」)(1999)외 9개 지도

(2) 지역자치 발행 지도

- ① 「서울」(「ソウル」) 서울시
- ② 「부산」(「釜山」) 부산광역시

(3) 민간회사 발행 지도

- ① 「명동」(「明洞」) no.29, 2000.12, 명동신문사
- ② 「월간 에스콧서울」(「月刊 エスコート ソウル」) vol 13, no.156, 2000.12, 유니콤
- ③ 「이태원」(「梨泰院」) no 8, 2000.11, 이지두 커뮤니케이션즈외 3개 지도

2) 단행본

- (1) 『사진으로 보는 가이드북 서울』(『寫眞で見るガイドブックソウル』) 田中節子, 한림출판사, 1986
- (2) 『사진으로 보는 가이드북 한국』(『寫眞で見るガイドブック 韓國』) 田中節子, 한림출판사, 1993 외 3권

3) 소책자

- (1) 「한국의 여행가이드」(「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2000
- (2) 「2001년 한국 방문의 해」(「2001年韓國訪問の年」) 한국관광공사 외 2권

4) 전단지

- (1) 관광 및 문화체험 안내 - 정동극장 공연안내
- (2) 지역관청 발행 안내 - 「고령군」, 「평창군」

5) 인터넷 사이트

- (1) <http://www.knto.or.kr> - 한국관광공사

(2) <http://www.provin.kyongbuk.kr> - 경상북도(경주관광안내)

(3) <http://japanese.metro.seoul.kr> - 서울시

또한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 6차 교육과정의 12종의 일본어 교과서를 본 연구의 조사자료로 삼았다.

2. 조사 방법

일반 자료의 표기는 수집된 표기 사례 중 誤記된 표기사례를 제외한 총 1,647개의 표기사례를 수집하였고,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표기는 총 265개의 표기사례를 수집하여 각각 MS사의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기형태별로 분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3. 한국어의 가타카나 표기 실태조사

1) 한국어의 가타카나 표기법

문교부가 제정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기본원칙 제 1항은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어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는 한국어의 표준 발음대로 적는 음성적 표기방식⁵⁾을 따르고 있다. 제 2항은 한국어의 가나 표기는 가타카나로 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3항은 일본의 가나 문자는 음절 문자이므로 음절 단위로 적되, 국어의 ‘자음+모음’ 음절은 두 박 mora 이 넘지 않도록, 받침은 한 박이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표기법의 세칙은 본고의 표기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반 자료에 나타난 가타카나의 표기

(1) 모음의 표기

1) 단모음의 표기

<표 1> 단모음 음절의 표기조사 결과⁶⁾

아	어, 오	우, 으	이	애, 에	외
ア	オ, オー	ウ	イ, イー	エ	ウエ

<표 2> 단모음 음절의 표기법

아	어, 오	우, 으	이	애, 예	외
ア	オ	ウ	イ	エ	ウエ

문교부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는 ‘장모음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표기조사 결과 단모음의 표기와 장모음의 표기가 함께 나타났다. 박주경(1985)은 현대 한국어의 장모음⁷⁾은 안정된 세대에서 음운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세대에서도 약화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장단을 음운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⁸⁾

예) 이태원 이テウォン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34)
 이ーテウォン (『ソウル』, 한림출판사, p.74)

2) 이중모음의 표기

<표 3> 이중모음의 표기조사 결과⁹⁾

야	여, 요	유	애, 예	위, 의	와	워	왜, 웨
ヤ	ヨ	ユ	イエ	ウイ, イ	ワ	ウォ	

<표 4> 이중모음 음절의 표기법

야	여, 요	유	애, 예	위, 의	와	워	왜, 웨
ヤ	ヨ	ユ	イエ	ウイ	ワ	ウォ	ウエ

(1)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표 5> 자음이 이중 모음 앞에 올 때의 표기조사 결과

자음 \ 이중모음	ㅈ, ㅊ	ㄱ, ㅋ	ㄷ, ㅌ	ㄴ	ㄷ, ㅌ	ㅂ, ㅍ	ㅅ, ㅆ
ㄱ, ㅋ, ㆁ	ㄱ, ㅋ, ㆁ	ㄱ, ㅋ, ㆁ	ㄱ, ㅋ, ㆁ	ㄱ, ㅋ, ㆁ	ㄱ, ㅋ, ㆁ	ㄱ, ㅋ, ㆁ	ㄱ, ㅋ, ㆁ
ㄷ, ㅌ, ㄴ			ㄷ, ㅌ, ㄴ		ㄷ, ㅌ, ㄴ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표 6> 자음이 이중 모음 앞에 올 때의 표기법

자음 \ 이중모음	ㅞ, ㅟ	ㅢ, ㅣ	ㅡ	ㅤ	ㅥ, ㅦ
ㄱ, ㅋ, ㆁ	ㄱㅞ(ㄱㅟ)	ㄱㅢ(ㄱㅣ)	ㄱㅡ(ㄱㅤ)	ㄱㅥ(ㄱㅦ)	ㄱㅧ(ㄱㅨ)
ㄷ, ㅌ, ㄷ	ㄷㅞ(ㄷㅟ)	ㄷㅢ(ㄷㅣ)	ㄷㅡ(ㄷㅤ)	ㄷㅥ(ㄷㅦ)	ㄷㅧ(ㄷㅨ)
ㅈ	ㅈㅞ	ㅈㅢ	ㅈㅡ	ㅈㅥ	ㅈㅧ
ㄹ	ㄹㅞ	ㄹㅢ	ㄹㅡ	ㄹㅥ	ㄹㅧ

이중 모음의 경우 자음이 선행하면 단모음으로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자음의 선행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중 모음으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발음이 용이한 단모음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많았다.

① /ㅞ/ 의 단모음화

- 예) 계룡산 ㄱㄹㅇㅞㅞㅞ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61)
ㄱㅞㄹㅇㅞㅞㅞ (「大田市トラベルマップ」, 한국관광공사)
 혜화 ㅎㅞㅞ (서울시 홈페이지)

② /ㅢ/의 단모음화

- 예) 희방사 ㅎㅞㅞㅞㅞ (관광공사, 「忠清北道トラベルマップ」 지도)
 희정당 ㅎㅞㅞㅞㅞ (『한국』, 한림출판사, p.30)

③ /ㅡ/·/ㅤ/의 단모음화

- 예) 된장찌개 ㄷㅞㅞㅞㅞㅞ (「韓國味の旅」, 한국관광공사, p.100)
 돼지갈비 ㄷㅞㅞㅞㅞㅞ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4)

(2) 표기의 혼란

① /ㅡ/의 표기 — ‘ㄱㅡ·ㅞㅡ’ 와 ‘ㄱㅤ·ㅞㅤ’ 의 혼용

- 예) 화성 ㅎㅞㅞㅞ (「京畿道トラベルマップ」, 한국관광공사)
ㅎㅞㅞㅞ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45)
 강화도 강ㅞㅞㅞ (「仁川トラベルマップ」, 한국관광공사)
강ㅞㅞㅞ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45)

문교부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는 이중모음 /나¹⁰⁾의 앞에 자음이 올 때 ‘クワ, フワ’ 등의 형태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기조사 결과 85%가 ‘クァ(グァ)・ファ’의 형태로 표기하고 있었다.

② /-/의 표기 — ‘우에’, ‘이’,의 혼용

- 예) 의정부 이치온브 (『ソウル』, 한림출판사, p.38)
- 여의도 요이드 (『韓國ショッピングガイド』, 한국관광공사)
- 예술의전당 이에스우이죤단 (『韓國ショッピングガイド』, 한국관광공사)

이중모음 /-/¹¹⁾의 표기는 문교부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는 출현 위치에 관계없이 이중모음 ‘우이’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 발음은 음운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 자음의 표기

1) 파열음 및 파찰음의 표기

<표 7> 파열음 및 파찰음의 표기조사 결과(단모음)

자음 / 모음	ㄷ	ㄱ, ㄴ	ㄷ, ㄴ	ㄷ, ㄴ	ㄷ, ㄴ	ㄷ, ㄴ
ㄱ, ㅋ, ㆁ	カ, ガ	コ, ゴ	ク, グ	キ, ギ	ケ, ゲ	
ㄷ, ㅌ, ㄷ	タ, タ	ト, ト	トゥ, ドウ, ト, ド		テ, テ, テー, デェ	
ㅂ, ㅃ, ㅍ	パ, バ	ポ, ポ	プ, プ	ピ, ビ	ペ(ペ)	
ㅈ, ㅉ, ㅊ	チャ, ジャ, ヂ	チョ, ジョ, ヂョ	チュ, ジュ	チ, ジ	チェ, ジェ	

<표 8> 파열음 및 파찰음의 표기법

자음 / 모음	ㄷ	ㄱ, ㄴ	ㄷ, ㄴ	ㄷ, ㄴ	ㄷ, ㄴ	ㄷ, ㄴ
ㄱ, ㅋ, ㆁ	カ(가)	コ(고)	ク(그)	キ(기)	ケ(게)	
ㄷ, ㅌ, ㄷ	タ(타)	ト(토)	トゥ(도우)	ティ(데이)	テ(테)	
ㅂ, ㅃ, ㅍ	パ(파)	ポ(포)	プ(푸)	ピ(피)	ペ(페)	
ㅈ, ㅉ, ㅊ	チャ(챤)	チョ(조)	チュ(쥬)	チ(지)	チェ(제)	

문교부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서는 파열음 및 파찰음의 표기에 대한 붙임 내용으로서 ‘ㄱ, ㄷ, ㅂ, ㅈ’이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ㄴ, ㄹ, ㄷ, ㅇ’과 모음 사이에서 울림 소리로 소리날 때에는 각각 ‘ㄷㅂ’행 및 ‘ㄱ’로 적고, 그 밖에는 ‘ㄷㅂ’행 및 ‘ㄷ’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카, 타, 파, 차’행음과 ‘가, 다, 바, 자’행음 표기의 혼용

예) 불고기 プルゴ기 (서울시 홈페이지)

 プル코기 (『韓國文化インサイト』, 한국관광공사, p.75)

(2) 된소리 되기 발음 표기의 혼란

문교부의 표기규정에는 연음, 자음동화, 구개음화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된소리되기¹²⁾에 대한 표기규정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표기의 혼란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예) 경복궁[경보궁] キョンボックン(『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24)

 キョンボッ깅ン(관광공사 홈페이지)

또한 어중에 오는 파찰음 /ㅍ/의 경우, 된소리되기가 적용된 ‘차’行音의 표기와, 적용되지 않은 ‘자’行音과 ‘ㅈ’行音의 3가지 표기가 함께 나타났다.

예) 석조전 소크초ジョン (『ソウル』, 한림출판사, p.18)

 소크조ジョン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24)

 소크쥬ジョン (『韓國』, 한국관광공사, p.7)

유성음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ㅈ, ㅊ’은 유성음 사이임에도 된소리로 발음되는 예외적인 경우 본고의 표기조사 결과에서도 표기의 혼란이 나타났다.

예) 울진[울쥌] 울진 (『慶北トラベルマップ』, 한국관광공사)

 울진로[을쥌로] 입구 울쥌로이브그 (『소울』, 서울시)

된소리되기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도(道), 동(洞) 등의 접미어의 표기와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데, 표기 규정에는 단지 발음나는대로 표기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예) 경상북도 [경상북도]

 キョンサンブト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74)

 キョンサンブ크 (『2001年韓國訪問の年』, 한국관광공사, p.11)

(3) 어중의 유성음 사이에 오는 /ㅍ/표기의 문제 — ‘차, 자, ㅈ’行音 표기의 혼용

예) 광장시장 クァン쟈ン市場 (『韓國』, 한림출판사, p.20)

계조암 ケゾアム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53)

의정부 イチョンブ (『ソウル』, 한림출판사, p.38)

2) 마찰음의 표기

<표 9> 마찰음의 표기조사 결과

자음 \ 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ㅠ	ㅝ, ㅡ	ㅚ	ㅜ, ㅟ	ㅞ	ㅟ, ㅠ, ㅡ
ㅏ, ㅓ	サ	ソ, ソー	ス, スウ	シ	セ							
ㅎ	ハ	ホ	フ		ヘ	ヒヤ	ヒョ	ヒ	フワ, ファ	フェ		

<표 10> 마찰음의 표기법

모음 \ 자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ㅠ	ㅝ, ㅡ	ㅚ	ㅜ, ㅟ	ㅞ	ㅟ, ㅠ, ㅡ	
ㅏ, ㅓ	サ	ソ	ス	シ	セ	シャ	シヨ	シュ	シエ	スイ	スワ	スオ	スエ
ㅎ	ハ	ホ	フ	ヒ	ヘ	ヒヤ	ヒョ	ヒユ	ヒエ	ファイ	フワ	フォ	フェ

마찰음의 표기는 장음, 이중모음 등의 모음과 관련된 표기의 혼란만이 나타났다.

3) 비음 및 유음의 표기

<표 11> 비음 및 유음의 표기조사 결과¹³⁾

자음 \ 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ㅠ	ㅝ, ㅡ	ㅚ	ㅜ, ㅟ	ㅞ	ㅟ, ㅠ
ㄹ	マ	モ	ム, ムー	ミ	メ		ミョ					
ㄴ	ナ	ノ	ヌ		ネ, ネー	ニヤ	ニョ					
ㄷ	ラ	ロ	ル	リ	レ	リヤ	リョ	ル, リユ	レ			

<표 12> 비음 및 유음의 표기법

모음 \ 자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ㅠ	ㅝ, ㅡ	ㅚ	ㅜ, ㅟ	ㅞ	ㅟ, ㅠ, ㅡ	
ㄹ	マ	モ	ム	ミ	メ	ミヤ	ミョ	ミュ	ミエ	ムイ	ムワ	ムオ	ムエ
ㄴ	ナ	ノ	ヌ	ニ	ネ	ニヤ	ニョ	ニユ	ニエ	ヌイ	ヌワ	ヌオ	ヌエ
ㄷ	ラ	ロ	ル	リ	レ	リヤ	リョ	リュ	リエ	ルイ	ルワ	ルオ	ルエ

비음 및 유음의 표기의 문제점은 자음동화 현상이 적용된 표기와 적용되지 않은 표기

가 함께 나타났다.

- 예) 영릉[영녕] ヨン~~ㄴ~~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47)
 ヨン~~ㄴ~~ (「京畿道 トラベルマップ」, 한국관광공사)

(3) 받침의 표기

<표 13> 폐음절 받침의 표기법

받 침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ㄹ, ㅁ, ㅂ	ㄷ, ㅌ, ㅈ, ㅊ	ㄹ, ㄹ	ㄴ, ㄴ, ㄴ, ㄴ	ㄹ, ㄹ, ㅁ, ㅂ
대표음	k	p	t	m	n, ŋ	l
표 기	ク	プ	ッ(促音)	ム	ン	ル

받침 표기는 다음 음절의 초성과 연음되거나 음운현상에 따라 받침의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1) 大·小 받침 표기의 혼용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는 축음(ッ)과 발음(ン)을 제외하고 받침에 해당하는 가나 문자의 大·小 표기 모두를 인정하고 있어 가나문자의 大·小 표기가 함께 나타났다.

- 예) 김치 キムチ (서울시 홈페이지)
キムチ (「江原道 トラベルマップ」 지도, 한국관광공사)

2) 일본어의 발음을 고려한 표기 규정

‘ㄱ, ㆁ, ㅋ’ 받침 뒤에 ‘ㄱ, ㆁ, ㅋ’ 초성이 올 때 ‘ッ’ 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표음 ‘ク’ 로 표기하는 경우도 함께 나타났다.

- 예) 석굴암 ソククラム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69)
ソククラム (관광공사 홈페이지)

‘ㄹ’ 받침 뒤에 ‘ㄹ, ㅁ, ㅂ, ㅅ’ 초성이 올 때 ‘ン’ 으로 표기하는 세칙이 있으나, 대표음 ‘ム’ 로 표기하는 경우도 함께 나타났다.

- 예) 김밥 キンパブ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32)
キムパブ (「慶南·蔚山市 トラベルマップ」, 한국관광공사)

‘ㅂ, ㅍ’ 받침 뒤에 ‘ㅂ, ㅃ, ㅍ’ 초성이 오는 경우 ‘ㅃ’으로 표기하는 세칙이 있으나 ‘ㅃ’ 대신에 ‘ㄴ’을 써서 ‘ㅂ’받침을 표기하였다.

- 예) 비빔밥 비빈밥 (「韓國ショッピングガイド」, 한국관광공사)
 비빈밥 (「明洞」, 명동신문사, 2000)

3) 음운변화의 적용 표기와 비적용 표기

- 예) 달양다령 타미얀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89)
 타미얀 (「韓國ショッピングガイド」, 한국관광공사)
 대학로[대향노] 테한크로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32)
 테하크로 (『ソウル』, 한림출판사, p. 52)

4) 과도한 발음 중심의 표기

- 예) 한라산 할라산 한라산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90)
 하라산 (『濟州』, 한림출판사, p.37)

5) 받침의 탈락

- 예) 한국민속촌 한크민소크초 (「韓國の旅ガイド」, 한국관광공사, p.45)
 한크민소크초 (관광공사 홈페이지)

6) 2박이 넘는 받침 표기

- 예) 한빛은행 한비트은행 (「月刊 エスコート ソウル」, 유니콤)
 한비트은행 (「韓國・ソウルマップ」, 한국관광공사)

3)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 나타난 가타카나 표기

본고의 12종의 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에 나타난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반자료의 표기보다는 문교부의 ‘국어의 가나문자 표기법’이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특히 인명의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인명의 표기는 문교부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는 성과 이름을 연음시키지 않고 따로 떼어 적으며, 성과 이름은 별개의 단어로 간주하여 표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표기에서는 성과 이름을 별개의 단어로 간주하여 이름의 초성에 오는 파열음 및 파찰음을 무성음으로 표기하는 경우와, 성과 이름을 하나의 단어로 간주하여 이름의 초성에 오는 파열음 및 파찰음을 유성음으로 표기한 사례가 함께 나타났다.

예) 준호 チュノ (교학사B), 진희 チニ (교학사B)
 진수 ジス (천재교육), 진호 ジンホ (교학사A)

특히 ‘이(李)’ 씨 성의 경우 長·短音 표기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4가지 형태의 표기가 나타났다.

예) 이(李) イ (천재교육, 지학사, 금성1, 성안당, 교학사B, 금성B)
イー (시사)
リ (진명B)
リー (민중서림)

Ⅲ. 가타카나 표기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표기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고의 표기 조사결과를 근거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표기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기의 통일을 위해서는 표기법의 기준이 되는 올바른 표기법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의 표기조사 결과에서도 현실 발음을 고려한 올바른 표기법은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현실 발음과 동떨어지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표기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올바른 표기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두 번째는 현실 발음을 고려한 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교부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은 기본 원칙으로서 ‘국어의 표준 발음대로 적는다’는 음성중심의 표기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의 실제 발음을 고려하지 않은 표기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이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국어의 표준 발음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준수하여 현실 발음을 고려한 표기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자음의 표기뿐만 아니라 모음의 표기, 특히 이중모음의 표기가 현실 발음에 맞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의 표기조사 결과 자음의 표기는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었으나, 특히 이중모음의 표기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실제 사용되는 음소의 비율면에서 자음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적은 편이지만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완전히 벗어나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대략적이고 간단한 표기 기술방식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표기법을 기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문교부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는 세칙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음운체계가 서로 다른 양국의 언어를 표기하기에는 부족하다. 세칙에는 ‘연음’, ‘자음동화’, ‘구개음화’, ‘ㄴ첨가’ 등의 음운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표기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만, ‘된소리되기’의 음운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표기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된소리되기를 비롯하여 음운환경에 의한 발음변화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표기법의 표기대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어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법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문교부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에 표기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사용대상이 일본어 화자인 경우에는 한국어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는 일본어 표기법에 맞게 일본어 표기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발음에 있어서도 일본인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는 음성적인 면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교부의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은 표기법의 사용대상을 누구로 선정하는가에 따라 표기법의 규정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표기법의 사용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표기법의 사용대상의 구체적인 명시가 시급히 요구된다.

3. 표기법의 교육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기법의 교육상의 개선점으로서 ‘국어의 가나문자 표기법’에 대한 홍보와 표기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어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는 공식적인 인명, 지명의 표기뿐만 아니라,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가타카나로 표기해야 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학습사항이다. 또한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교육은 쓰기 및 작문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어 고유명사의 가타카나 표기의 통일을 위해서는 제정된 표기법의 홍보와 교육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교과서의 표기의 통일부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표기법의 행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과서의 표기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자료의 표기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자료의 표기는 모든 표기의 모범이 되며 기준이 되는 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표기조사 결과 심지어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단어에 대한 표기가 다른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다. 표기법의 통일은 공공기관에서의 모범적인 통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후에 여행사,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자료의 표기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마치면서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1987년에 문교부에서 발표한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문제점을 인식하여 문교부에서 발표한 표기법의 규정이 실제 표기에서 어떠한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현행 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가타카나 표기 연구가 국내 연구에 머무른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가타카나 표기 연구를 위하여 일본 현지에서의 한국어의 가타카나 표기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한국에서의 가타카나 표기와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지 연구하고 싶으며, 또한 어떠한 표기를 취했을 때 일본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실제 조사도 병행하여 연구하고 싶다.

【注】

- 1) 편수자료란 문교부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제작할 목적으로 새로이 교과서 편수관을 위촉해서 교과서 편수자료를 제작, 거기에서 새로운 외래 표기법을 제정하여 그것을 각급 학교 교과서에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 2) 강성아 「日本語 教材의 語彙調査研究 -第6次 教育課程 高等學校 日本語 教科書を 中心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38.
- 3) 梅田博之 「韓國語の片假名表記」(『講座 日本語と日本語教育 日本語の文字・表記(下)』東京：明治書院, 1989), p.29.
- 4) 조사자료에 발행년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발행년도를 기입하지 않았다.
- 5) 한국어를 일본어의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국어를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의 표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즉 한국어의 실제 발음에 가깝도록 옮겨 적는 음성적 표기 방법과 철자에 충실하도록 표기하는 음소적 표기 방법으로 구분된다.
- 6) 표기조사 결과에서 표기법에 맞지 않는 표기 사례는 진하게 표시하여 나타냈다.
- 7) 한국어의 장모음은 주로 낱말의 첫 음절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자립성이 강한 형태소들로 이루어진 복합어의 경우에는 둘째 형태소의 첫 음절에서도 장모음이 나타난다.
- 8) 박주경 「현대 한국어의 장단음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p.72.
- 9) 조사 과정에서 해당 모음으로 표기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란을 공란으로 비워 두었으며, 표기조사 결과 표기법과 다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표기는 굵게 표시하였다.
- 10) 한국어의 이중 모음/ㅑ/는 첫 음절에 자음이 앞서지 않으면 표기 그대로 [wa]로 발음되며, 자음이 선행하는 경우에도 이중 모음/ㅑ/는 단모음으로 발음되지 않고 이중 모음/ㅑ/로 발음된다.
- 11) 이중 모음/ㅑ/는 첫 음절에서 자음이 선행하지 않으면 이중모음 [ui]로 발음되고, 자음이 앞서면 단순 모음 /ㅣ/로 발음된다. /ㅑ/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자음이 선행하지 않을 때에도 /ㅣ/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며, 조사 '의'는 보통 /ㅑ/로 발음된다.
- 12) 된소리 되기는 원칙적으로 받침 'ㄱ, ㄷ, ㅌ'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ㅅ, ㅈ'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 13) <표 11>의 표기결과는 자음동화의 음운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단어에 한정하였으며, 표기 사례에 있는 모음음소만을 나타낸 것이다.

【參考文獻】

- 강성아 「日本語 教材의 語彙調査研究—第6次 教育課程 高等學校 日本語 教科書を 中心으로—」(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고수만 「현행 일본어 한글표기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日語日文學研究』第 34輯, 1996).
- 국립국어연구원 『국어의 로마자 표기 자료집』(1996).
- 국립국어연구원 『외래어 표기 용례집』(1997).
- 국어연구소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1986).
- 문교부 『대한민국 주요 지명의 로마자 표기 용례집』.
- 민현식 『국어 정서법 연구』(태학사, 1999).
- 박주경 「현대 한국어의 장단음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이덕봉 「國語속의 日本製外來語」(『日本學報』第 13輯, 韓國日本學會, 1984).
- 이상억 「국어 표기 4법 논의」(대학교양총서 45,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이은정 外 『국어어문규정집』(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 이호영 『국어음성학』(태학사, 1996).
- 이한섭 『일어학개설』(한신문화사, 1989).
- _____ 『韓國 日本語學關係文獻 一覽』(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 임팔용 「IV. 문자와 표기」(『新 日本語學의 理解』시사일본어사, 1998).
- 조남조 外 「독립신문 100돌기념 한국 신문방송 말갈 변천사(下)」(韓國校閱記者會, 1996).
- 최재철 「일본문학 翻譯과 表記의 계문제」(『日語日文學研究』第 34輯, 1996).
- 편무진 「일본어 한글 표기의 합리적 방안」(『日語日文學研究』第 34輯, 1996).
- 허 응 『國語音聲學』(정음사, 1982).
- 今田滋子 『日本語の發音』(凡人社, 1988).
- 梅田博之 「韓國語의 片假名表記」(『講座 日本語と日本語教育 日本語の文字·表記(下)』, 明治書院, 1989).
- 日本語教育學會 『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1982).
- 水谷信子 『日本語教育概論』(放送大學教材振興會, 1997).
- 武部良明 『日本語の表記』(角川書店, 1989).
- 天沼寧·大坪一夫·水谷修 『日本語音聲學』(くろしお出版, 1988).

<http://www.provin.kyongbuk.kr> (경상북도 경주관광안내)

<http://www.kyongju.kyongbuk.kr> (경주시청)

<http://www.knto.or.kr> (한국관광공사)

<http://japanese.metro.seoul.kr> (서울시)

<http://www.2001visitkorea.com>

韓國語 固有名詞のカタカナ表記に對する研究

黃 貞 珉

本研究は、韓國語固有名詞の日本語のカタカナの表記についての研究論文である。韓國語固有名詞のカタカナ表記法についての規定は、1987年に文教部から發表された「國語假名文字表記法」が現在まで假名文字の表記法の基準になっているが、實際には多様な形態の表記がなされている。

本研究ではこのような韓國語固有名詞のカタカナ表記法についての問題点を認識し、文教部から發表された「國語假名文字表記法」の規定が實際の表記でよく守られているか、いないか、また、その原因を分析し、考察する。本研究では韓國において日本語で發行された観光の本および案内地圖などの一般資料と現行の12種の高校の日本語の教科書に掲載されている韓國語の固有名詞のカタカナ表記についての調査を実施し、その結果をMS社のExcelプログラムを使って分析した。

本稿の表記調査の結果に根據し「國語假名文字表記法」がよく守られていない原因を述べるならば、表記の基本原則として「國語標準の發音のまま書く」という音聲中心の表記法を原則としてはいるが、表記法の内容を具體的に調べてみると音聲中心の表記法があまり守られていないと言える。本研究の表記調査の結果でも表記法で提示した表記の發音が實際の發音と差が大きければ大きいほど、表記法が守られておらず、似ている發音の表記で代替表記したり、表記法でも提示しなかった新しい形態での表記をしているものもあった。

このような現行の表記法の問題点を改善するためには、表記法の基準になる正しい表記法の改正がまず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正しい表記法の改正が行われれば、表記法の統一はより簡単になされるだろうと思われる。正しい表記法の改正のためには現行の表記法が大略的であると同時に、簡単な表記の記述方式を使用し、具體的な表記法を記述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國語假名文字表記法」について表記の教育を擴大し、教育現場から表記の統一が成されるようにし、教科書をはじめ國家の公共機關で發行される資料の表記の統一が早急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